



괴산군의회 하반기

의정소식

2023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책임의회**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감의회**



괴산군의회
<http://council.goesan.go.kr>

기승으로 품고 방조하는 괴산군의회
 열린의회 · 책임의회 · 공감의회

• • • •

제9대 괴산군의회

의정방침·의정슬로건

의정슬로건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괴산군의회

의정방침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책임의회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감의회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괴산군의회

CONTENTS

발간사.....	04
의원 현황	05
2023년 상반기 의정 성과	06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	08
건의·결의	11
5분 자유발언	16
사진으로보는 의정활동	28
언론에 비친 의정활동	40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	62





발간사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괴산군의회의장 신송규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속에 힘차게 출범한 제9대 괴산군의회가 어느새 개원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따뜻한 격려와 따가운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제9대 괴산군의회가 군민과 소통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9대 괴산군의회에서는 군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그간의 의정 활동을 담은 2023년 하반기 의정소식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괴산군의회는 군민이 행복한 괴산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한 자치입법은 물론,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군정의 견제와 감시 역할 등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이장협의회, 노인회 등 다양한 계층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의정활동을 펼쳐 열린의회를 실현하는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기후변화에 각종 재해와 인력난, 그리고 농자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 하고자 국회와 중앙부처 등에 농작물 냉해대책 촉구, 쌀값 폭락에 따른 대안 마련 촉구 등 군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책임 의회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대변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역량교육 실시,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활동,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 등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감의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군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회의 문을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군민 여러분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괴산군의회의장 신 송 규



괴산군의회 의원현황



의장 신 송 규

다선거구 / 국민의 힘
3선 (제 7·8·9대 의원)



부의장 장 옥 자

나선거구 / 국민의 힘
3선 (제 7·8·9대 의원)



운영행정위원장

김 주 성

나선거구 / 국민의 힘
초선



산업개발위원장

김 낙 영

다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2선 (제 8·9대 의원)



의원 김 영 희

가선거구 / 국민의 힘
초선



의원 안 미 선

가선거구 / 무소속
2선 (제 8·9대 의원)



의원 최 경 섭

가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송 영 순

비례대표 / 국민의 힘
초선



2023년 상반기 의정성과



내실 있는 회기 운영

- 회기운영 : 5회 43일(정례회 1/11, 임시회 4/32)
- 업무보고 청취(1회), 행정사무감사(1회 / 운영 34 건, 산업 54 건), 결산승인(1회), 예산안 심사(1회)
- 안건처리 : 93 건
 - 조례안(의원발의 34건, 과산군수 제출 34건), 예산안 5건, 동의안 3건, 건의안 4건, 기타13건
- 의원정례간담회 : 12회 134건

지역현안 해결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 환경보전 특별위원회(1회) : 38개소

건의문, 성명서 채택

- 과산군 공공하수도 보급률 확대 촉구 건의문 채택 : 3. 7.
-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 재검토 건의문 채택 : 4. 13.
- 농작물 냉해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 : 5. 16.
- 꿀벌 실종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 : 6. 12.

의원 연수· 벤치마킹

- 과산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 : 3. 22.~ 3. 24.
- SOS골든타임 지킴이 교육 : 3. 27.
- 과산군의회 청렴연수과정 교육 : 4. 13.
- 순천시의회 및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 방문 : 4. 25.
- 과산군의회 성인전문과정 교육 : 5. 23.
- 행정사무감사대비 의원 역량 강화 교육 : 6. 9.

**회기운영
현황**
(2023.1.1 ~ 6.30.)

- 개최횟수 : 5회 (정례회 1회, 임시회 4회)
- 회의일수 : 연 43일(정례회 11일, 임시회 32일)

회기 별	개 회 일	폐 회 일	회기일 수
제317회 임시회	2023. 1. 26.	2023. 2. 7.	13일
제318회 임시회	2023. 3. 7.	2023. 3. 8.	2일
제319회 임시회	2023. 4. 5.	2023. 4. 13.	9일
제320회 임시회	2023. 5. 16.	2023. 5. 23.	8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2023. 6. 12.	2023. 6. 22.	11일

**안전처리
현황**
(제317회 ~ 제321회)

구 분		발의·제출			가결			부결 (계류)	의안 철회
		소계	의원	군수	소계	원안	수정		
계		94	53	41	93	91	2	-	1
조례·규칙	소 계	68	34	34	68	68	-	-	-
	제 정	11	6	5	11	11	-	-	-
	개 정	55	28	27	55	55	-	-	-
	폐 지	2	-	2	2	2	-	-	-
기타	소 계	26	19	7	25	23	2	-	1
	예산안	5	-	5	5	3	2	-	-
	동의안	3	3	-	3	3	-	-	-
	건의안	4	4	-	4	4	-	-	-
	기 타	14	12	2	13	13	-	-	1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



제317회 임사회 (2023.1.26. ~ 2.7./13일간)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19개 담당관·관·소)
-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3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318회 임사회 (2023.3.7. ~ 3.8./2일간)

- 괴산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 괴산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의회 의원윤리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가족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버섯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공공하수도 보급률 확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원안가결)

**제319회
임시회**
(2023. 4. 5.
~4. 13. / 9일간)

- 괴산군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 재검토 건의문 채택의 건(원안가결)

**제320회
임시회**
(2023. 5. 16.
~5. 23. / 8일간)

- 괴산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괴산 축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 괴산군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원안가결)
-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사무의 위탁관련 조례 수탁기관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사무의 위탁관련 조례 위탁 근거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농작물 냉해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원안가결)
- 괴산군 농촌지역개발 등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2023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원안가결)
- 2023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원안가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가결)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안(원안가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수정가결)

**제321회
제1차 정례회**
(2023. 6. 12.
~ 6. 22. / 11일간)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원안가결)
-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안가결)
- 괴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이태원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원안가결)
-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풀벌 실종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원안가결)
- 괴산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괴산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23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원안가결)
- 2023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원안가결)



건의·결의



과산군 공공하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한 원주시방환경청 방문



과산군 공공하수도 보급률 확대 촉구 건의

(3.7.)



충청북도 과산군은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 과산'이라는 군정목표 아래 친환경 유기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농업군으로 한강수계의 발원지이며 과산군 대부분의 하천수는 수도권 식수원으로 공급되는 남한강 최상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맑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수 년 동안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을 저지하는 등 골골이 흐르는 깨끗한 청정수를 보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속리산 국립공원을 비롯한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청정계곡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펜션 등의 숙박시설이 들어서면서 계곡 내 하천 오염이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과산군 일대 남한강 상류의 가구별 단독정화조에서 흘러 나오는 오수와 장마철 우수로 인한 미처리 하수가 한강수계인 달천으로 방류되어 유리알 같이 깨끗하고 투명하던 계곡수가 이끼 등 이물질이 자라는 하천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하수도 보급률은 94.8%이고 군 단위의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률은 74.6%이며, 충청북도 군 단위 평균 하수도 보급률은 70.3%입니다.

하지만 과산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49.6% (2021년 기준)로 도내 최하위이며, 과산읍 89.9%를 제외하면 면 단위의 하수도 보급률은 약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남한강 하천수를 식수원으로 하는 인근지역과 수도권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하천수 공급과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수관과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잘 갖추는 것이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깨끗한 자연환경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남한강 최상류 지역의 깨끗한 물과 청정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우리군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한 투자는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과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조기 마무리되고 과산군의 공공하수도 보급률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지침 개정안 재검토 건의 (4.13.)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023년 지역사랑 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방자치 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제한하도록 권고했으며, 1인당 구매한도 월 70만원, 보유한도 최대 150만원 축소가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축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대형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개정안이 한정된 재원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내 자금순환과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농촌지역에서 농·축협 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주유소 등은 그 동안 조합원을 비롯한 주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생필품 및 식재료 등 주요 소비처로 이용되어 왔으며, 조합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온 곳이기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일괄규제 방식은 농촌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되, 농촌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실태조사, 지역주민의 편의성, 지역사회의 경제파급효과 등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나,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에 의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점의 자격요건, 등록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지침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정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등이 입증된 정책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를 중단했다가 뒤늦게 국비지원을 결정했으며, 최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구조조정할 것을 예고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축소와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과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건의드리오니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

셋, 농촌지역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넷, 영세 소상공인 및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라.



농작물 냉해 대책 촉구 건의 (5.16.)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산업 중 하나로 파종기, 개화기, 성장기, 수확기의 기온, 강수량, 일조 시간 변화가 농작물의 품질수준, 식품 안전성 및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불안정해진 기후 여건은 자연재해나 작물 생육 교란 등으로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토양 성분 변화, 병해충 등 농업생태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봄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냉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까지 접수된 우리 군의 냉해 피해 면적은 73ha로, 충청북도 전체 피해 면적의 약 11%가 넘는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사과와 배, 복숭아 등 과수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지만, 그 밖의 주요 작물에 대한 피해 우려도 깊은 상황입니다. 옥수수를 조기 정식한 농가는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됐고, 감자는 감자순의 동결 피해 등이 예상됩니다. 저온 현상이 더 길어진다면 배추는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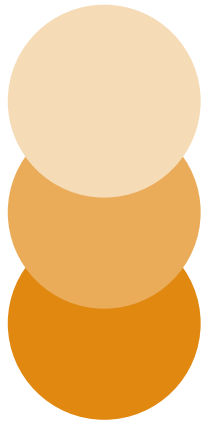
확기에 추대 위험 또한 상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우리 군은 올봄 기온이 평년 대비 3℃ 상승되어 과수의 개화가 10일 정도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곧바로 영하의 기온이 이어져 전형적인 냉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로는 약 20%, 복숭아는 약 30% 정도가 개화 중심화에 냉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7 ~ -1.1℃의 분포를 보이는 과수의 개화 냉해점을 감안하면, 만개기의 기온 하락과 저온 지속이 중심과에 수정 불량과 동낙 발생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품질 하락 또한 걱정인 상황입니다.

봄철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변동폭까지 커졌고, 올해 이상고온과 이상저온 현상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농작물의 생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기후 변화 리스크와 기상이변의 영향이 일상화 되어 영농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



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구체적인 수치로 실증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작물 냉해에 대한 보험 보상률은 아직 50%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욱이 냉해 보상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료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건비와 농약 비용 등의 재정적인 압박이 여전한 가운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과산군의회는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영농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냉해를 입은 피해 농가의 조속한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라!

봄철 냉해는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시점의 피해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복구와 생육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지원이 필수인 것입니다. 정부의 피해 조사 기간을 대폭 연장하여 보상 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냉해의 피해 복구 계획은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상의 현실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재해특별경영안정기금 등을 활용한 과감한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 개선과 함께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하라!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이지만, 현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

다. 냉해 등 불가항력인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반복되고 있는데도 경직된 운영으로 보험료는 상승하고 보장은 축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후 보상뿐만 아니라, 열풍방상팬과 미세살수장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자금의 전폭적인 지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상금 산정 부분이나 보험료율, 손실 보장 체계 등에서 농민을 위한, 농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에 특화된 실질적인 기후변화의 대응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의 현상과 영향, 취약성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관련한 행정통계를 생산하고 축적하여 표준화하는 동시에 농가의 인식 개선, 경축순환 시스템의 보급 및 확대 등에도 힘써야 합니다. 비정형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포함해 농가를 비롯한 지역단위 정보의 연계는 거시적으로 이상기상 대응 품종의 육성 및 기술개발을 위한 든든한 기초로 쓰일 것입니다. 결국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력 향상은 지역이 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단위의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농업 · 농촌 부문의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 및 관리 전략에 이러한 우리 과산군민의 간절한 노력과 염원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꿀벌 실종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 (6. 12.)

최근 몇 년 동안 꿀벌이 소멸에 가까울 정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0억 마리, 올해는 200억 마리가 자취를 감추거나 폐사하였으며 과수 농가 임대용 벌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양봉농가의 피해규모가 2022년도에 7,200여 농가가 1,300여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며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꿀벌이 사라지는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온난화 등 기후변화, 응애류 등의 해충 피해, 농약 살포 등 약제 오용, 꿀벌의 면역력 약화, 밀원수 등의 먹이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열매는 바람, 곤충, 새 또는 사람에게 의해 종자식물 수술의 화분이 암술머리에 옮겨 붙는 수분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특히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70% 이상이 꿀벌의 수분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데 국내에서 화분매개의 경제적 가치는 약 6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꿀벌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중요하며, 없어서는 안될 화분매개자로 아직까지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은 없습니다.

꿀벌의 개체수 감소는 인류에게 직격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농산물 생

산량 감소와 이로 인한 곡물가격 폭등 및 식량난 초래,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꿀벌의 실종에 따른 양봉산업의 피해는 농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으로 확산되어 식량위기를 넘어서 인류의 생존도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과산군의회는 꿀벌 감소에 따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드리오니 반드시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양봉업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상하라.

둘, 밀원식물 조성 사업을 확대하고 적극 지원하라.

셋,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양봉직불제를 도입하라.

넷, 가축재해보험의 실효성을 위해 보장범위를 확대하라.

다섯, 꿀벌실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5분 자유발언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 1. 26.)

일하는 방식의 개선 제안

최경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괴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괴산군의 살림살이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최종 예산 규모는 7,852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정부 예산도 이미 2,569억 원을 확보해 1인당 예산액이 도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지역 현안사업인 정주여건 개선,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농업경쟁력 확보, 교통망 확충, 관광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에 쓰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와 민간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행정의 영역과 업무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례없이 길게 이어지는 감염병의 발병과 확산으로 국제사회는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나서야 글로벌 문제가

곧바로 지역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을 마침내 자각하게 되었고, 그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고유의 공공행정 영역에서부터 아직은 행정에 있어 생소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방역과 복지 서비스까지, 행정의 영역은 시간이 갈수록 그 범위가 확장되고 영향력은 더 두터워져 주민의 일상생활과 점점 더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런 행정 서비스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동시에 수요자이고, 지역주민과 직접 접점에 있는, 우리 괴산군 공무원의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안이 현업의 공무원들에게 각자의 공공철학과 직업윤리의 확립과 성장의 계기가 되고, 더불어 다양한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주민들에게 가장 효과적,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첫째,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사업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는 추상적이고 정성적인 언어의 사용을 철저히 배제하고, 구체적이고 정

량적인 수치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고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어떤 현상을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현상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는 개선할 수도, 관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분의 데이터로부터 전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의회와의 협치 경험을 체계화합니다.

대규모 예산이 지원되는 중 · 장기 단위의 국책사업 응모와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는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민간을 참여시키는 협치 경험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마을과 생활단위의 문제는 지역구의 의원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 행정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의회와의 협치는, 다양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실천하는 과정의 경험으로 궁극적으로는 과산군 전체의 정책의제 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정책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목표에 반영합니다.

미리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 시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미 결정해 놓은 정책을 단지 집행하는 성과 지표로는 측정하기 어렵고, 평가의 효과도 단시일 내에 나타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소 실험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행정의 의미가 확장되고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의 향상을 평가의 가장 큰 목표로 중점을 둔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보상 체계가 아닌 목적에 대한 성찰로서의 평가는, 정책의 핵심가치와 자기 성장의 연관성을 증

대시킬 뿐만 아니라, 각자의 업무범위 내에서 일의 가치를 조화롭게 도울 것입니다.

창의력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능력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엮어서 새로움을 생각하고 구체화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혼자만 아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연결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조직의 규범과 가치는 우리와 늘 함께 하기에 내면화되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 자신의 것이 됩니다. 조직의 일 처리 방식과 이유가 점차 내가 일하는 방식과 이유가 되는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산군 행정서비스 역량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산타임즈 게재(3. 20.)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과산군의의회

신 송 규 의장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의 부활 이후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한 밑거름이 준비되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2.0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영광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의회는 전문성부족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에 직면해왔다. 원인은 다양하다. 지방의원의 사명감과 열정 부족, 관료주의 확산, 도덕·윤리의식 결여, 형식적인 심의, 그로 인한 집행부 견제와 감시 부실 등이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실 정치에 대한 냉소적인 기류도 여전하다. 지역 주민들은 이른바 생활 정치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을뿐더러, 특별하고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에서의 정치적 주장은 경제적 산출을 늘리고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등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진정과 요청이 대부분이다. 필요에 의한 효율과 효용이 협력과 상생의 정치 가치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의회는 올해 지방자치의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한다.

최우선적으로, 의회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 구축을 과제로 선정하였다.

오늘날 지방의회가 처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지역 주의 불신과 무관심이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성의 확보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을 단순한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과정의 중요한 당사자이자 파트너로 생각하고 지역 주민과의 포용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의회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지역 주민이고, 대표성은 주권자인 유권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의정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민과 항상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의정에 대한 주민홍보를 내실화하는 동시에 의정 활동을 통해 취득한 각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방청이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역의 정치 지형이 바람직한 형태로 확립되지 않는다면 생태의 지속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희망은 없다.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유지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 판단의 기준과 척도가 되어야 한다.

대나무는 씨앗을 심은 후 첫 4년 동안은 죽순이 하나 올라오는 것을 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4년 동안 모든 성장은 땅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동안 뿌리가 형성되어 땅속으로 깊고 넓게 퍼져나가 5년째에는 25미터 높이로 훌쩍 자란다. 힘들지만 끈기 있게 계속 노력을 해나가면 우리에게도 마침내 그 5년째의 시기가 올 것이고, 그때의 성장과 변화는 우리 모두의 지혜가 될 것이다.

만물은 유전한다. 모든 것은 변하고 순간순간 새로운 다른 것이 된다. 세상은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의 목적은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해 좋은 삶을 이루는 것이다.



괴산타임즈 게재(4. 3.)

지방자치단체와 예술마을

김 낙 영 의원



‘예술’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1. 기예와 학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특별한 재료, 기교, 양식 따위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 공간 예술, 시간 예술, 종합 예술 따위로 나눌 수 있다.
3. 아름답고 높은 경지에 이른 숙련된 기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술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인간의 다양한 활동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

인간은 과학과 예술 등의 고귀한 활동을 통해 진화하고 발전했다. 불편한 것을 개선하거나 연구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해 왔다. 가끔은 예술이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진 것은 아닌지 잊고 지내기도 한다

음악, 미술 등의 예술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를 형성하고 감성을 키우는 등

삶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에 들어 가게 되면 입시 위주의 환경에 놓이게 되어 예술은 보통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한 번 멈춘 예술이 다시 일상으로 스며드는 데에는 많은시간이 걸리며, 어릴 적의 아련한 추억으로

남거나 미련으로 남아 있다가 다시 찾아오기도 한다. 경쟁이 아닌 다양성, 휴식, 숭결한 인간의 활동 등으로 설명되는 예술은 어쩌면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공기와도 닮아서 그 존재의 소중함을 잊고 살곤 한다.

지방에서는 이러한 예술을 접할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음악회, 미술전시 등이 드물며,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들을 만나는 일도 흔치 않다. 예술가들은 창의적이며 행동으로 표현하고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예술이 주는 힘, 예술가들의 역할이 있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략적으로 예술마을이나 예술가들을 유치한 사례가 있다.

대도시의 경우 보통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예술가들을 선정·지원하고 다양한예술행사를 주최 및 주관을 한다. 한발 더 나아가서, 예술가 레지던시(작업공간 지원)를 조성한 사례도 있는데, 인천 아트플랫폼이 대표적인 사례다. 예술가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유형에는 부천 영상행복주택, 서울 성북 창조인빌 등이 있다. 예술가들의 작업공간과 주거문제 해결을 함께 노력한 사례도 있는데, 전주 서학동 예술마을이 그러하다. 서학동 예술마을에는 작업공간이 모여 있으며 사회주택을 통해 주변보다 낮은 주거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다.

농촌에서의 사례를 찾아보면, 경북 의성에서는 ‘예술가 일촌맺기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마을 이장님을 직접 만나서 설명회를 해가며 주거공간을 확보했고, 연극, 무용, 사진,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청년예술가들을 선발해서 주거공간, 거주지원금을 제공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활동을 지원했다.

예술인마을 조성을 통해 주민들은 다양한 예술을 경험할 수 있으며, 예술가들은 창작과 공동체활동을 하며 농촌에서의 삶을 이해하고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술가들이 들어오고 예술마을이 조성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주민들과 예술가들의융화를 위해 혹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조정을 위한 활동가나 촉진자가 필요하다. 또한, 세밀한 기획과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우리 괴산군도 예술촌을 준비중이다. 무엇을 상상하고 어떠한 기능을 담을지 어떻게 준비할지 잘 살피고 챙겨야 할 것이다.

지역공동체 참여하기

장 옥 자 부의장



지역에서의 정치적 선택권이 확대되고 주민이 원하는 지역 발전방향의 설정이 가능하게 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의 책임과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지역 공동체 사업은 지역이 당면한 문제들을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 주도의 성격이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지속 가능성 확보 등으로 여러 형태의 다양한 사업들이 시도되고 있다.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도와주려는 욕구가 강하다. 대체로 갈등이 생길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생계를 꾸리는 것 이외에는 큰 직업적 욕심이 없고 대부분은 그 이상의 가치를 동경한다.

하지만,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끌리고 나중에야 타인을 인식한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다른 구성원과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않는다. 특별한 쟁점 없이도 갈등이 만들어진다.

주민들은 끊임없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 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에 참여한다.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돕는 것보다 학식과 열정을 갖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리더를 먼저 찾는다. 리더의 존재를 공동체 활성화의 선결 요건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공동체는 학습과 교육으로 거듭나고,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스스로 조직적으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특출난 리더와 그의 역량을 기대한다. 주민들은 문제에 대한 대담과 해결 능력을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더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기대는 신뢰를 쌓았던 리더도 한순간에 공동체 내에서 불신이나 갈등을 초래하게 만들기도 한다. 행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체에 밀착한 리더가 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가 다변화되면서 구성원들 사이의 합의와실행은 쉽지 않다. 정말 어렵다. 구성원들은 리더에게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의 신지식과 기술, 경영 능력을 갖춘 기업가적 자질과 민주적인 합리성을 함께 요구한다.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은 모임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 자원 등을 공유하여 다른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해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상호존중과 역할 부담뿐만 아니라 서로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리더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존경은 구성원들이 참여와 협력을 이루며 일을 진행하는 것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리더와 구성원은 서로가 서로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조장(助長)은 맹자에 나오는 고사성어로 성장을 돕는다는 뜻이다.벼 이삭이 달릴 때까지 기다릴 수 없던 성질 급한 농부가 모를 잡아 빼내는 모습에서 유래했다. 좋은 뜻이지만 조급함, 나쁜 습관과 억지 추구 등의 의미로 쓰인다. 과정에 대한 성찰은 하지 않는 것이다.

꾸준한 학습과 자연스러운 성장은 성공 확률을 높인다. 좋은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하는 실패와 성공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법을 발견하게 한다. 공동체는 단순히 목표지향적이라기보다는 그 목표가 특별한 성격을 띠고 있다. 지역 공동체가 성장을 이루어 내는 과정이 곧 목표인 것이다.

좋은 과정은 좋은 결과를 낸다.



과산타임즈 게재(5. 15.)

어린이 통학로 안전개선

김영희 의원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교통 정책 수립의 기초를 기존의 원활한 교통 확보 목적에서 보행자 안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반복되는 여러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어린이들의 통학로 주변의 보행안전과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통학로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너무 많다. 어린이 시점에서의 보행환경 조성은 아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안전을 위한 시설과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가장 먼저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이다. 횡단보도 등의 노면 표시, 안내 표지판, 신호등, 단속 장비 등을 점검해 안전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불합리한 도로 운영 체계는 개선해야 한다.

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도 마찬가지다. 표지판, 시선유도봉, 중앙분리대, 노면 포장, 과속방지턱 등의 노후도와 설치 규격 등을 살펴보고 노면 불량, 무단횡단, 과속 등으로 이어지는 위험 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보도는 보행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이다. 쓰레기, 노상 적치물 등으로 인해 협소한 보행 공간과 보행 동선이 단절되는 곳이 많다. 보도 신설과 확폭, 통학로 정비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먼저겠지만,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한 CCTV의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 불법 주정차 등의 교통 지도 단속과 더불어 어린이의 시야를 방해하는 전신주 이설, 가로수 정비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군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정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역점을 두는 과제 중의 하나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개선이다. 초등학교 주변 등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고, 군청 담당 부서와 경찰서 등 유관 기관에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아이들에 대한 안전 보장이 없다면 과산군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책과 예산만 있다고 어려움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군청 담당자들은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민원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사업 과정 자체가 주민들에 대한 규제와 한, 단속 등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생활과 생업 등에 어려움이 생겨 반대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반대 민원은 지자체 담당자들의 노력과 지역 주민들의 양보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고마운 일이다. 정책의 수용성 향상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정서적인 공감과 교감인 것이다.

지역사회의 무관심에 더해진 기초질서의 위반에 대한 둔감과 무분별한 관용이 결국에는 통제되지 않은 지역 쇠락으로 진행되어 공동체의 기능마저 상실되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2023년의 오늘 과산군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대목일 것이다.

어린이 안전 정책의 본질은 일상을 관통하는 안전성의 확보가 어른 중심에서 어린이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아이들에게 위험을 회피하는 "기술"보다 안전을 추구하는 "문화"를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이들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겠는가.



과산타임즈 게재(5. 29.)

기록하는 삶

김 주 성 의원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전라도 당진에서 유배기간 중 집필을 시작하여 1818년(순조18)에 목민심서를 완성했다. 목민심서는 벼슬을 하는 이들(목민관)이 지켜야 할 준칙과 덕목 등에 관해 쓴 것으로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정치를 엿볼 수 있으며, 현재의 정치인, 관료, 경영인 등에게 대표적인 지침서로 꼽힌다.

충무공 이순신은 1592년부터 1598년 임진왜란 동안 군중에서 2,500여 일 동안 일기를 써 내려갔는데, 200여 년이 지나 난중일기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이는 국보 제76호로 지정되었으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러한 기록은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학생들은 숙제로서 일기를 써야 했다. 방학 때에는 개학이 임박해서 한꺼번에 썼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미리 숙제를 해야지 하면서 다짐했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다.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 했지만 일상적 글쓰기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기와 같은 기록의 가치, 중요성, 실천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한다. 기록은 기획요, 스토리텔링이요, 콘텐츠이며, 기록의 기본은 글쓰기다.

글쓰기를 하면 뚝뚝해진다. 글쓰기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 보고 듣고 관찰한 것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과정이다.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손을 사용하게 되며 신체와 두뇌의 활동량이 증가한다.

글쓰기는 정신건강에 좋다. 스트레스를 받는 등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글쓰기를 통해 우울감,

불안한 생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글쓰기를 통해 말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게 되며 대화를 할 때 본인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글쓰기의 장점은 많다.

종이 위에 필기구로 쓰던 것이 이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대체되었으니, 이러한 도구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틈틈이 메모를 해두고 하루 혹은 일정한 단위로 마감하면서 인터넷에 기록을 남겨보면 어떨까. 영농일지, 맛집, 장소, 나와 이웃들의 이야기 등 글쓰기의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나에게는 익숙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요즘의 온라인상에서의 글쓰기를 통해 예상하지 못 했던 공감을 받거나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결과 확장을 경험할 수 있다. 누군가에 말하기보다 나 스스로가 해야 느낄 수 있다.

글쓰기는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와 결합해서 효과가 증가되며 콘텐츠가 되어 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자기만족에서 시작된 기록이 콘텐츠에 대한 보상, 나아가서는 작가로 등단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 정갈하게 정리된 우리의 기록을 발견한다면 감동적이지 않을까. 자신에게 맞는 매체(플랫폼)를 선택해서 기록하는 삶을 실행에 옮겨보자.



괴산타임즈 게재(6. 12.)

괴산에서 치유 농업

안 미 선 의원



치유농업은 이미 세계적인 농업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대표적으로 치유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케어팜'을 들 수 있다. 노인, 장애인, 장애 청소년 등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동물케어, 농작물케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농작물을 키워 판매한다. 운영경비의 많은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작물 판매 등을 통해서 충당한다. 치유와 복지 그리고 고용의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치유농업법이 2021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법률적인 근거를 갖추었으며, 우리 군도 제320회 임시회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우리 괴산군이 치유농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의 소득증진과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치유농업 관련 자원, 시설,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기존 농가 역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치유농업을 통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일반 농사와의 차이점은 건강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세계행복지수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2023)에 따르면, 핀란드는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덴마크가 2위, 아이슬랜드는 3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은 137개국 중 57위를 차지했는데,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게다가, 2018년~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등을 차지해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수년 전부터 치유(힐링), 웰빙, 오토, 워라벨, 저녁이 있는 삶 등이 TV를 비롯한 미디어에서 등장 했다. 과거에는 성공, 경쟁 등의 단어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요즘은 행복, 존중, 배려, 가족과 같은 단어들이 주목받고 있다. 나와 우리의 삶과 주변을 돌아보고 치유하며 건강한 삶을 살자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으며, 삶을 대하는 관점이 바뀌어 가고 있다.

치료가 상처나 증상을 다스리는 의학의 영역이라면, 치유는 치료를 통해 상처가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에 관여하는 요법 등을 담은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치유와 농업이 결합된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를 이용해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의미한다.

치유농업의 범위는 식물뿐만 아니라 가축 기르기, 산림 및 농촌문화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의료적·사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충북도는 농촌교육농장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마음치유농장' 6곳을 선정했으며, 괴산에서도 한 곳이 선정되었다.

앞으로는 치유농업시설의 선정 및 관리, 기존 체험농장과 차별화 및 특성화,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치유농업사 양성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치유농업 관련하여 도시민들이 괴산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관광으로 이어지고 귀농·귀촌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해본다.



괴산타임즈 게재(6. 26.)

지역과 대학 상생하기

최경섭 의원



지역 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은 다양하다. 교육·연구·봉사의 3대 기능 이외에도 지역의 경제·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순기능도 적지 않다. 지역에 대학이 입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인다. 지역의 매력을 증대시키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역 이미지를 제고한다.

인재 육성, 지역 혁신, 지역 산업 발전 등 지역 생태계의 내생적 발전과 분류 형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요구는, 대학이 상징적인 보조·자문의 기능을 넘어 지역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부족함이 없다.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지역 대학의 생존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위기는 심각하다. 저출산의 여파로 인한 학령인구의 원천적 감소, 정부의 대안과 정책 부재,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수도권 중심주의가 오늘날 지역 대학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역 대학의 위기는 지방 위기의 축소판이다. 학생 미충원으로 인한 지역 대학의 재정적 한계는 폐교로 이어지고, 지역 고등교육 체제가 붕괴하면서 지역 경제도 함께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지역 대학의 부실과 폐교는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일자리 감소,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역 대학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지역 대학 육성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발표했다.

대학에 투자·지원할 2조 원 규모의 교육부 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충청북도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일부 우려도 있지만 기대가 크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괴산군과 중원대학교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지역 정체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괴산학 강좌 운영, 지역과 학문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 발전 학술연구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중원대학교의 고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학생 및 임직원의 각종 소비 지출은 지역사회에 직·간접 소득 효과로 작용해 그 경제적 영향력 또한 매우 크다.

이제 RISE 등 정책 기반이 마련된 만큼 민·관·산·학의 협력 거버넌스가 실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 네트워크, 운영 체계의 정비와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 소멸의 최고 권위자인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는 젊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지역 대학 출신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에 남은 이들은 산업, 교육, 의료, 복지 등의 주민 수요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고급 경영 조직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 문을 닫는다는 말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지역과 대학은 상생과 협력으로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특별위원회 활동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2023. 4. 6. ~ 2023. 4. 11. (38개소)

조사대상 및 방법

- 대상 : 폐수·대기배출 사업장, 오수·폐기물처리사업장, 가축분뇨방지시설 설치 농가 등
- 방법 : 현지확인 점검

주요 점검사항

- 시설주변 환경정비 및 악취발생 여부
- 방역시설 정상작동 여부
- 폐수 등 무단 유출 여부
- 기타 관련법에 의한 준수사항 등

조사결과

- 종합의견
 - 2023년 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결과 기업체와 축사주변의 환경관리 위생환경은 전반적으로 양호했음.
 - 일부 사업장의 경우 작업장 내 환경정비가 필요하며 축산폐수 무단배출 및 악취가 심각하여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이 요구됨.
 - 특히 민원이 잦은 시설은 깊은 주의를 기울여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단위:개소)

- 유형별 현황

계	지적사항	정상	수범사례	건의사항
38	23	11	3	1



행정사무감사



목적

-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검토
-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습득
- 행정의 지적사항에 관하여 적정한 시정 요구
-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검토

기간

- 2023. 6. 13.(화) ~ 2023. 6. 21.(수)

감사대상 사무 및 부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 범위
- 본청 21개 관·과·사업소, 읍·면

감사결과

- 종합의견(운영행정위원회)
 - 정책과 집행결과에 따른 바람직한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민의 대리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 법과 제도의 적법성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면밀히 감사하였음.
 - 업무추진 결과와 관련하여 지적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행정 전반적인 제도점검으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와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방향을 점검하는 등 의견 교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였음.
 -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행정적·재정적 수단을 재검토하여 적절하게 처리하고, 건의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행정적 처리 및 새로운 정책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종합의견(산업개발위원회)**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군정의 주요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
- 각종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의견 수렴,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지원되는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면밀한 사후 평가가 필요할 것임.
- 제32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군민들과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위원회별 현황**

위원회	계	시정 요구	정책 제안	지적 사항	수범 사례	수감부서
	88	5	57	18	8	
운영 행정	34	3	15	11	5	기획홍보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재무과, 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보건소, 읍·면
산업 개발	54	2	42	7	3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정원산림과, 도시건축과, 안전정책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1월 2일

2023년 괴산군의회 시무식



1월 17일

대한노인회괴산군지회 초청 간담회



1월 26일 ~ 2월 7일

제317회 임시회 23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2월 2일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토론회 및 결의대회



2월 10일

시장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골목형상점가 초청 간담회



2월 23일

의원정례간담회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월 23일

2023 새마을회 임원진 접견



3월 1일

제104주년 3.1절 기념
총열탑 참배



3월 3일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안순자 교육장 접견

2023 괴산군의회 상반기 의정소식



3월 9일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 콘서트



3월 10일

충주시의회 방문



3월 14일

2023년 괴산친환경농업대학 입학식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3월 16일

청안 네패스 기숙사 공사 현장 확인



3월 21일

괴산군의회-증평군의회
고향사랑 기부제 교차 기부



3월 21일

김영환 도지사 방문 도민과의 대화

2023 괴산군의회 상반기 의정소식



3월 22일 ~ 3월 24일

괴산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



3월 27일

박덕흠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3월 27일

SOS 골든타임 자킴이 교육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3월 30일

제78주년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3월 30일

2022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4월 3일

소수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및
독립유공자 공적비 준공식



4월 7일
괴강불빛공원 준공식



4월 10일
괴산소방서 방문 직원 격려 및 간담회



4월 6일 ~ 4월 11일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4월 13일

괴산군의회 청렴연수과정 교육



4월 25일

순천시의회 방문



4월 25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견학



5월 1일

괴산군 친환경 첫 모내기 행사



5월 12일

제6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선수단 격려(영동)



5월 13일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식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6월 1일
호국보훈의 달 호국원 참배



6월 1일
괴산군 장애인 선수단 출정식



6월 2일
칠성시장거리 축제 '별별락장' 개막식



6월 6일

제68회 현충일 추념행사



6월 9일

제18회 충북어르신생활
체육대회 격려(충주)



6월 13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언론에 비친 의정활동



괴산군의회, 설 명절 위문품 전달

불교공뉴스(2023. 1. 17.)



충북 괴산군의회(의장 신송규)는 17일 설 명절을 맞이해 도움이 필요한 관내 40가구에 위문품(생활용품 꾸러미 세트)을 전달했다.

이날 위문품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비대면으로 전달했으며, 의원들은 의회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 했다.

신송규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2023년 새해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우리의 이웃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괴산군의회는 2023년에도 지속적인 소통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의회는 매년 명절에 소외계층을 보듬는 의정 구현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과산군의회, 대한노인회 과산지회 초청 간담회

중도일보(2023. 1. 18.)



과산군의회가 17일 소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과산군지회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한호 지회장 및 각 읍·면 분회장과 신송규 의장 및 군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군의원들은 각 회장들로부터 읍·면별 노인회 및 경로당을 운영하며 겪었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과산지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경로당 활성화 방안, 운동기구 점검 및 관리, 운영비 사용 및 정산 합리화, 의회와 노인회의 소통 정례화 등이다.

이에 군의회는 이날 나온 의견에 대해 집행부와 상호 협력해 모든 안건을 빠른 시일 내 해결을 약속하고 어르신 권익증진 및 복지 향상에 힘쓰기로 했다.

신송규 의장은 "앞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즐겁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의회 최경섭 의원 5분 자유발언

불교공뉴스(2023. 1. 26.)



충북 괴산군의회 최경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은 26일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일하는 방식의 개선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경섭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공공행정 영역이 시간이 갈수록 그 범위와 영향력이 확장되어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점점 더 밀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의 향상을 위해 △통계의 적극적인 활용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협치 경험 체계화 △정책 성과에 대한 주민의 객관적인 평가와 결과의 정책 반영 등을 구체적인 개선 방법으로 제시했다.

최경섭 의원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엮어서 새로움을 생각하고 구체화하는 능력을 통해 괴산군의 행정서비스 역량을 발전시키자"라고 강조했다.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는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괴산군의회,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조례 제정

연합뉴스(2023. 2. 8.)



군의회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8일 밝혔다.

김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군수가 5년마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와 제거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책에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조사와 퇴치·방제 계획, 수거·처리·재활용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대회 등 관련 활동을 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았다.

의회 관계자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괴산의 생태자원 보호와 지속적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7~8일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도내 지자체 중에는 도와 청주시가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조례를 두고 있다.

언론에 비친 의정활동

과산군의회, 시장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골목형상점가 간담회 개최

중부매일(2023. 2. 10.)

과산군의회(의장 신송규)는 10일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과산시장 상인회, 과산군 소상공인 연합회, 골목형 상점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지속가능한 과산발전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버스킹 공연, 청년 중심의 플리마켓의 안착, 골목형상점가 등록 추진 등을 통한 젊음의 거리 활성화 ▷시장구간 확대, 매대 확보 및 쉼터 조성을 통한 고객 편의 증대, 소공원 및 실외 무대 조성 등을 통한 과산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우 과산시장 상인회장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과산시장 상인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가지게 되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자리를 통해 과산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송규 의장은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리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통해 오고 간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산군의회는 2022년 7월 9대 의회 출범 이후,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새마을지회, 노인지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군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

과산군의회 "청년연령 19~49세로 확대"... 조례 개정

뉴스시스(2023. 3. 2.)

군의회는 오는 7~8일 열린 318회 임시회에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고 2일 밝혔다.

김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청년층의 나이를 '15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군의회 관계자는 "더 많은 군민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연령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과산군의 청년 인구 수는 지난달 기준 5천378명에서 8천207명으로 2천829명(52.6%) 늘어난다.

과산군은 청년 기본 조례를 통해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지원하고, 청년단체 등에도 행정·재정적 도움을 주고 있다.

신송규 과산군의회 의장,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충청일보(2023. 3. 3.)



충북 과산군의회는 신송규 과산군의회 의장이 지난 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15회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보은군에서 개최된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97차 2023년 정기총회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헌신과 지방자치 발전·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상을 받았다.

신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에 공헌한 노력을 평가받은 이번 수상을 그 어떤 수상보다도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9대 과산군의회 전반기 의회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송인헌 과산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라며 "더욱 겸허한 자세로 남은 9대 전반기 과산군민과 더욱 소통하고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과산군의회는 2022년 7월 9대 의회 출범 이후,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새마을지회, 노인지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군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괴산군의회 임시회 개회

충청매일(2023. 3. 7.)

“
각종 조례안 등 16건 심의
”



충북 괴산군의회는 7일과 8일 양일간 31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군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역하천 수질오염 문제와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조기완료 돼 군의 공공하수도 보급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괴산군 공공하수도 보급률 확대촉구 건의문을 공동발의 하고 환경부와 충북도청에 송부할 예정이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인 괴산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외 7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괴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안건은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가족돌봄 청소년보호 지원조례안, △괴산군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괴산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괴산군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촉진 조례안 △괴산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조례안 등이다.

충북 괴산군의회, 원주지방환경청에 '공공하수도 보급률 확대' 촉구

충청뉴스라인(2023. 3. 10.)



충북 괴산군의회가 10일 원주지방환경청에 공공하수도 보급률 확대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7일 열린 318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공공하수도 보급률 확대촉구 건의문'에 따른 후속 조치다.

건의문에는 하천 수질오염 문제와 마을하수도 정비 조기 마무리 등 공공하수도 보급이 확대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괴산군은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등으로 계곡 오염이 심해지고 있고, 남한강 상류 가구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와 장마철 우수가 한강수계인 달천으로 방류되고 있다.

전국 평균 하수도 보급률은 94.8%이고 도내 군 단위 평균 하수도 보급률이 70.3%지만 괴산군보급률은 49.6%에 그쳐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신송규 의장은 "남한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지역과 수도권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시는 하천 물 공급이 필요하다"며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하수관과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잘 갖추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괴산군의회, 3월 두 번째 간담회 가져

충북 괴산공보뉴스(2023. 3. 30.)



충북 괴산군의회(의장 신송규)는 30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집행부와 함께 9대 괴산군의회 3월 두 번째 정례 간담회를 열고 괴산군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괴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포함 15건을 논의했다.

신송규 군의장은 인사말에서 올라온 안건을 관계 담당자들과 함께 충분한 현안 논의를 거쳐 괴산군 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이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신의장은 군의회와 괴산군 집행부 간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및 협의를 통한 정책으로 괴산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언론에 비친 의정활동

괴산군의회-증평군의회, 이웃간 고향사랑기부제 교차 기부

동양일보(2023. 4. 3.)



괴산군의회와 증평군의회가 21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차 기부에 나섰다.

신송규 괴산군의회장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경쟁이 아닌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고향 사랑기부제 상호기부를 통해 양 지자체의 협력과 소통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령 증평군의회장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언론에 비친 의정활동

괴산군의회 안미선 의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동양일보(2023. 4. 3.)



“충북 괴산군의회 안미선(사진) 의원이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운영, 실태조사,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군민의 의견을 듣고 상임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4월 14일까지 괴산군의회 홈페이지(참여마당-의회에 바란다),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괴산군의회,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 발의

경충일보 (2023. 4. 5.)



충북 괴산군의회(의장 신송규)는 5일에 열린 제319회 임시회에서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의원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 제도는 공공부문의 비용 절감과 함께 민간 부문의 전문성·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행정사무를 공공부문 및 민간의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폭넓게 활용돼왔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위탁 관계 조례의 법령 불부합, 비합리적 행정 운영에 따른 절차상 하자, 수탁기관 선정의 불공정,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위탁 사무의 사후관리 부적정 등의 문제가 표출되어 행정 불만을 가중시키고 행정사무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괴산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자치 행정의 근간인 행정사무의 위탁 관계 조례를 지속적으로 재정비해 나아갈 계획을 수립하고 그 첫 번째 실행으로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낙영 의원은 "상위 법령을 근거로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계 조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해 문제점, 보완점을 다각도로 검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신송규 의장은 "앞으로도 우리 괴산군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자치 입법을 선도적으로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언론에 비친 의정활동

괴산군의회 신송규의장, 괴산소방서 격려 방문

충청일보 (2023. 4. 11.)



충북 괴산소방서는 지난 10일 오후 괴산군의회 신송규 군의장과 장옥자 부의장, 김주성 군의원, 안미선 군의원, 괴산군청 직원들이 최근 산불화재로 인해 지친 직원들을 격려 하기 위해 괴산소방서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신송규 군의장은 현안업무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군과 소방서의 협력 체계 유지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괴산소방서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송규 군의장은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괴산군도 화재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상현 서장은 "바쁜 일정에도 소방서를 방문해 격려해주신 괴산군의회 군의장님과 군의원님들, 군청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안전한 괴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에 비친 의정활동

과산군의회, 13일 '청렴교육' 실시

중부매일 (2023. 4. 13.)



과산군의회(의장 신송규)는 13일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신송규 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범위와 절차, 부패방지 등 청렴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룬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원칙과 윤리적인 책임에 대해 재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렴교육이 의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과산군의회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매년 부패방지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언론에 비친 의정활동

괴산군의회, 319회 임시회 폐회… 지역상품권 개정 재검토 건의 등

노컷뉴스(2023. 4. 13.)



충북 괴산군의회가 13일 319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9일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지역상품권 지침 개정안 재검토 건의문 채택, 조례안과 기타 의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장옥자 의원은 '지역상품권 지침 개정안 재검토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문에는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 전면 재검토와 국비지원 확대, 농촌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강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11개 읍·면 폐수·대기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방문 점검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김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언론에 비친 의정활동

과산군의회 김영희 의원 어린이 통학로 안전점검 실시

과산 공보뉴스(2023. 4. 21.)



충북 과산군의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4월 19일 동인초등학교와 명덕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녹색어머니회, 과산군청 유관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동인초등학교 인근을 돌러보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희 의원 등은 우선 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 등을 포함한 통학로 전반의 안전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통학로 내 안내표지, 무인교통단속장비,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보도가 없는 구간, 학교 통학로 인근 공사현장 등 어린이 안전의 위험요인에 대해 지속적 안전 관리와 개선을 강조했다.

점검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새 학기를 맞이할 때면 의례적으로 실시하던 어린이 통학로 안전점검이 행사 성격이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점검과 개선으로 전면 전환되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다" 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과산군청 담당자는 "군청은 주기적인 통학로 안전점검, 안전시설물 개선, 통학로 안전지킴이 배치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며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당부했다.

점검을 주관한 김영희 의원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로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강화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라고 말하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비롯한 기초질서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은 사실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없으면 목적을 이루기 힘들다" 면서 "여러 어려움에도 안전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군청 유관부서와 경찰서 등에 감사드린다" 라고 말했다.

김영희 의원은 제9대 과산군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불법 주·정차와 무단 노상 적치물 등을 포함한 기초질서 확립과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 제안을 해오고 있다.

과산군청은 올해 관련 부문 군정운영 방향으로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행정 구현을 전략목표 및 이행 과제로 선정하고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 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쳐오고 있다.

언론에 비친 의정활동

괴산군의회, 순천시의회·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견학

불교공뉴스 (2023. 4. 27.)



충북 괴산군의회(의장 신송규)는 지난 25일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견학을 실시했다.

신송규의장과 의원들은 순천시의회를 방문해 의정활동 교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괴산의 농특산물과 산막이옛길 등 관광지를 홍보했다.

신송규의장은 "의원들의 건문을 넓히고, 타 시군의 우수 시책을 우리군에 접목시켜 변화와 발전이 체감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라며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괴산군의회를 실현해가고 있다.

언론에 비친 의정활동

충북 괴산군의의회 320회 임시회 개최

충청매일 (2023. 5. 16.)



충북 괴산군의의회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32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군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기타안건,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올해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할 예정이다.

운영행정위원회는 괴산군 야영장 육성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괴산군수가 발의한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 등 16건의 조례안과 의안을 심의한다.

산업개발위원회는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괴산군수가 발의한 성불산 산림휴양 단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 등 6건의 조례안과 의안을 심의한다.

예산결산심의위원회는 5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열고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 설명과 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의한다.

23일에는 2차 본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기타안건,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 감사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한편, 괴산군의의회 송영순 의원은 농작물 냉해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괴산지역 냉해피해 면적이 73ha 이상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과수를 포함한 기타 작물의 냉해 피해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냉해피해 농가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과 지원금액 확대 △특화된 기후변화 대응대책 등을 건의했다.

언론에 비친 의정활동

괴산군의회, 성인지 전문과정 교육

중부매일 (2023. 5. 23.)



괴산군의회(의장 신송규)는 23일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의정활동을 위한 성인지력 향상'을 주제로 한 성인지 전문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재)충북여성재단과 함께 추진한 이번 교육은 성평등의식 함양과 성인지력 향상을 통해 의원들의 인식 개선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됐다.

신송규 의장은 "성평등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중요한 가치이며, 우리 의원들도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성인지 전문과정이 성평등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괴산군의회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 역량강화 교육

중도일보 (2023. 6. 10.)



괴산군의회가 9일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이 '자치법규로 분석하는 행감?예?결산 괴산군 통합행정' 주제로 연 이날 교육에는 군의원 전원과 사무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의회운영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최 소장은 이날 교육에서 자치법규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감사 전략, 조례분석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렸다.

신승규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군의원 모두가 전문성과 의정활동 능력을 한 단계 높여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책임의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의회는 12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년도 결산검사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과산군의회, 제321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충북 과산공보뉴스(2023. 6. 12.)



과산군의회(의장 신송규)가 '제321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12일 '제1차 본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가 각각 이뤄지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꿀벌 실종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한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성)는 과산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2건과 과산군수가 제출한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해 모두 16건의 조례안과 기타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어, 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 김낙영)는 과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1건과 과산군수가 제출한 과산군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모두 2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예산결산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희)는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의해 승인한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위원장 최경섭)는 지난 4월 이루어진 환경오염원 실태 현지조사를 통한 지적사항과 개선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받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이와함께 장욱자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인구감소 지역 우선 배치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문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인구감소 지역 우선 배정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사업 병행을 위한 제도적 보장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문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안미선 의원은 꿀벌 실종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안미선 의원은 건의문에서 ▷양봉업 피해 실태조사 ▷밀원식물 조성사업 확대 ▷양봉직불제 도입 ▷가축재해 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언론에 비친 의정활동

괴산군의회,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개정

동양일보(2023. 6. 27.)



괴산군의회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과 관련한 사무 위탁 규정을 구체화하고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군의회는 '괴산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사무 위탁 관련 조례 정비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군수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다'고 바꿔 조례에 근거해 객관적인 선정 근거를 마련했다.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통합센터 관리·운영에서 사무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지정 주체를 명확히 했다.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운영·관리주체를 구체화했다.

현행 조례는 직매장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한 것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로 개정해 위탁 대상 기관을 더 세분화했다.

이들 개정 조례안은 최경섭(지역농산물 공공급식), 김영희(괴산푸드), 김주성(김치산업), 장옥자(한돈로컬푸드 직매장)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괴산군의회는 지난해 의원연구단체 '위탁 조례 연구회' 활동으로 다수의 위탁 관계 조례에서 상위 법령과 불합치하고 규정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등의 문제를 짚었다. 이어 괴산군 사무 위탁 조례 정비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2023년도 회기운영 계획

구분	회기	일수	주요처리안건	비고
합계	9회 94일 (정례회 2회 / 41일, 임시회 7회 / 53일)			
제317회(임)	1. 26. (목) ~ 2. 7. (화)	13일	- 주요업무보고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 결산검사위원 선임	
제318회(임)	3. 7. (화) ~ 3. 8. (수)	2일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제319회(임)	4. 5. (수) ~ 4. 13. (목)	9일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 조사	
제320회(임)	5. 16. (화) ~ 5. 23. (화)	8일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제1회 추경
제321회 (제1차 정례회)	6. 12. (월) ~ 6. 22. (목)	11일	- 202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 행정사무감사	
제322회(임)	8. 8. (화) ~ 8. 9. (수)	2일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제323회(임)	9. 5. (화) ~ 9. 13. (수)	9일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제2회 추경
제324회(임)	10. 4. (수) ~ 10. 13. (금)	10일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 주요건설사업장 현지 조사	
제325회 (제2차 정례회)	11. 21. (화) ~ 12. 20. (수)	30일	- 시정연설, 군정에 관한 질문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도 예산안 심사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제3회 추경

※ 본 계획은 운영상 변경될 수 있음.

- 2023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 : 연 3~4회 - 의원 정례간담회 : 월 2회 (2, 16일) - 의원 위탁연수 : 연 2회



괴산군의회
<http://council.goesan.go.kr>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괴산군의회

28026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객정로 92 【의 장 실】 ☎(043)830-3570 【부의장실】 ☎(043)830-3571
【의 원 실】 ☎(043)830-3592 ~ 6 / 팩스(043)833-2281 【의회사무과】 ☎(043)830-3580 ~ 90 / 팩스(043)833-9986